

# 2023년 보건의료산업 신별중앙교섭 협약서

## 1 임금

### 1. 임금인상

① 2023년 임금인상은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에서 정한다.

### 2. 최저임금

① 2023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에서 정한다.

##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및 운영개선

- ① 사용자는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전면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② 사용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과 관련한 정부 기준과 방침,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면 노사 공동 논의기구를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.
- 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인력은 휴직대체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정규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

## 3 인력 확충

### 1. 직종별 적정인력 확충

- ① 사용자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과 방침,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면 노사 공동 논의기구를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.
- ② 사용자는 휴가 및 휴직을 조합원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여 확충하도록 노력한다.

## 2. 환자 안전을 위한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(ratios) 시행

- ① 사용자는 간호등급제 개편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상향 조정되면,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방안을 노사 합의로 마련하여 시행한다.

## 3. 업무분장 명확화 및 불법의료 근절

- ① 사용자는 의사 업무는 의사가, 약사 업무는 약사가, 간호사 업무는 간호사가, 의료기사 업무는 의료기사가 하도록 직종 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한다.
- ② 사용자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한다.
- ③ 사용자는 의사 외의 직종에 의한 대리 수술과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 대리 처방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

## 4. 비정규직 문제 해결

- ① 사용자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금, 호봉, 근무조건, 복리후생 등 차별을 금지한다.
- ② 사용자는 비정규직 현황 자료를 조함에 제공한다. 비정규직 현황 내용은 노사 합의로 마련한다.

## 4 의료민영화·영리화 전면 중단

- ① (지방의료원·적십자병원) : 사용자는 위탁운영을 용인하지 않으며, 위탁운영 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·사가 공동 활동한다.

## 5 노동조건 개선

-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시간외근무 12시간을 포함 최대 52시간 상한제를 준수한다.
- ② 사용자는 임금에 관한 사항, 노동시간에 관한 사항, 연장근무에 관한 사항, 임금체계에 관한 사항 등 노동조건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기존의 단체협약을 존중하

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.

- ③ (공공병원) : 노사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 인건비(야간간호료, 감염 관리수당 등)를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하고, 추가 인력을 총정원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.

2023년 9월 13일

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

보건의료산업 사용자 교섭대표

위원장 나순자 (  )

(특수목적공공병원 사용자 교섭대표)

국립중앙의료원장

주영수 (  )

국립암센터원장

서홍관 (  )


한국원자력의학원장

이진경 (  )

서울시동부병원장

소윤섭 (  )

서울시북부병원장

송관영 (  )

서울시서남병원장

장영수 (  )

대한적십자사 회장

김철수 (  )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직무대행

하유성 (  )

(지방의료원 사용자 교섭대표)

경기도의료원장

정일용 (  )

(민간중소병원 사용자 교섭대표)

녹색병원장

임상혁 (  )